

2018년 7월 29일, 제주시 도두1동 이옥선 씨 님, 이현정 조사.

이옥선(여, 1938년생, 제주시 도두1동)

-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출생, 20대 초반 직업군인인 남편을 따라 약 15년간 육지와 제주도를 오가며 생활하다가 귀향하여 도두동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제보자의 어머니가 하루는 초상집에 가려 집을 나섰는데, 치마를 두른 낯선 여자가 이웃집 대문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을 보았다. 어머니가 낯선 여자에게 누구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고, 여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 몸을 숙이자 여자는 사라져버렸다. 어머니는 주변 이웃집 주인들에게 어떤 여자가 찾아 왔었는지 물었지만, 그런 일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다.

[조사자] 헛게허고 도체비허고는 뭇나마씨?

[제보자] 틀려, 틀리주게이. 들어봐, 우리 어무니가 우리 집에서 영 나오민. 옆에 집에, 그 옆에 집엔 또 이문간이. 우리 집도 이문간 신 집이고 그 집도 이문간 신 집인다. 우리 집에서 영 나와가지고, 이 집 이문간 신디 오며는 영 알러레 그 집도 들어가젠 허믄 발이 움막 들어가이.

젠 그레 영 그 우녁집이 초상 나네이 우리 저 고모네 집이라 그 우녁집이가. 거난 우리 외사춘덜 사는 데지이. 초상 나난 거기 이제 보레 가젠. 뭇 가까와 그 집이 그 집이라. 이건 서녁집 이건 우녁집 이건 우리집 영 헤영 뻬인다. 영 줄랑 줄랑 나오단 보난이. 치마를 요영 헤연 영 깍을 감앙 둘른 듯헌디. 고개를 영 쑤욱 헤영 그집더레 들어사고 잇더레

“거, 누게고?”

허난. 사름인 줄 알안.

“누게고?”

헤도 편편.

“누게고?”

영헛 옆드런 허난 엇어저 불어렌.

“아이고, 이거 누게 이 우녁집이 왓다네 그레 노력가는 걸 나가 뵈이엔 곶으  
난, 대답 아니 헤영 가 불엇인가?”

헤연. 이제 그 집이 간 이디 누게 왓이넌 들으난

“안 왓수다.”

우녁집이 간

“이 집이 누게 와 가샤?”

“안 왓수다.”

경허난 거 헛게엔 허는 거라, 헛게.

[조사자] 헛게는 여즈구나, 여즈로 나타나마씨?

[제보자] 여잔지 남잔지 하여튼 거는 모르겠고. 그때 우리 어무니 본 건 여자더레. 치마가  
영 깍을 요영 둘런이, 넘젠 헛어렌. 이 지방을 대문 지방, 대문 지방을 영 옷을  
둘런이.

헛게는 있는 건 확실헤여. 우리 어무니가 멧 번 겪엇고렌 허난.

• 핵심어: 헛게(귀신), 초상, 치마, 여즈(여자), 사름(사람), 문지방(문턱)